

2021
고3학평

2021년 시행 고3 4월 학평 국어 독서 증거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분석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지문 분석]

형사소송법(증거재판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범죄사실은 증거에 의해 인정되어야 하며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증거재판주의의 개념)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증거재판주의라 한다. 이는 법관의 자의적인 사실 인정이 허용될 수 없다는 것(합리적인 증명을 받은 증거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으로, 공평하고 객관적인 형사재판을 가능(증거재판주의의 기능)하게 하는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증거는 형사소송법 체계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증거의 중요성) 형사소송법은 증거의 증거능력과 증명력(핵심 제재 ★증거능력과 증명력의 관계를 묻는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음.)을 구별하고 있다.

1문단: 증거재판주의의 개념과 증거의 중요성

먼저 증거능력이란 어떤 증거가 증명의 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증거능력의 개념)을 말한다.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는 법정에서 주요한 사실 인정의 자료로 이용되어 이를 바탕으로 유죄 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는 원칙적으로 사실 인정의 자료로 쓰일 수 없다.]([]: 증거능력의 유무에 따라 사실 인정의 자료로 쓰일 수 있는지가 결정됨.)

2문단: 증거능력의 개념과 증거능력 유무에 따른 결과

증거능력의 요건은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증거능력의 요건과 증거능력을 배제해야 하는 조건 모두 법률로 규정되어 있음. ★이 글에서 알 수 없는 것을 묻는 문제에 '증거능력의 구체적 요건'이 답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음. / '증거능력'은 법률로 규정되고 '증명력'은 법관의 판단에 좌우됨.) 형사소송법은 증거능력을 배제해야 하는 조건을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자백배제법칙, 전문법칙 등(증거능력을 배제해야 하는 조건 / 이 조건을 만족할 시 증거능력을 상실함.)의 세 가지 원칙으로 명문화(법률의 조문에 명시되다.)하고 있다. 이 원칙들의 공통적인 목적은 피의자, 피고인의 권리를 보장하여 공평한 재판을 실현(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자백배제법칙, 전문법칙의 공통점 / 피의자: 범죄의 혐의가 있어서 정식으로 입건되었으나, 아직 공소(검사가 법원에 특정 형사 사건의 재판을 청구함.) 제기가 되지 아니한 사람. / 피고인: 형사 소송에서, 검사에 의하여 형사 책임을 져야 할 자로 공소 제기를 받은 사람. ★증거능력을 배제해야 하는 조건들의 목적은 '피해자'가 아닌 '피의자'나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데 있다는 데 주의할 것.)하는 데에 있다.

3문단: 증거능력을 배제해야 하는 조건과 목적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증거능력을 배제해야 하는 조건① ★증거능력을 배제해야 하는 조건 세 가지를 비교하는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음.)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원칙(개념)으로, 형사사법기관의 위법한 증거수집을 억제(목적)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을 바탕으로 수집한 파생증거, 곧 2차 증거의 증거능력도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따라 배제(독수 과실 이론의 개념)된다. 이를 독수 과실 이론이라 하는데, 위법하게 수집된 1차 증거가 독에 오염된 나무라면 그로부터 수집된 2차 증거는 그 나무에 달린 독 열매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예컨대(독수 과실 이론의 예) 영장 없이 위법하게 체포한 상태에서 얻은 진술(위법하게 수

집한 1차 증거 = 독수)이라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은 물론, 그 진술의 도움으로 찾아낸 물증의 증거능력 (1차 증거로 수집된 2차 증거 = 독 열매) 도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위법하게 수집된 1차 증거와 2차 증거 사이에 인과관계가 희석 또는 단절(2차 증거의 증거능력이 인정될 때)되었다고 판단될 때는 2차 증거의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4문단: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개념과 목적 및 독수 과실 이론

자백배제법칙(증거능력을 배제해야 하는 조건②)은 수사 기관이나 법원이 진술자의 자백을, 임의성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얻어낸 경우에 그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원칙(자백배제법칙의 개념 / 임의: 자기 의사 대로 처리하는 일.)이다. 자백은 중요한 증거이지만, 수사 방법이 자백을 얻어 내는 데에만 의존하게 되면(= 임의성을 제한하게 되면) 인권 침해의 우려가 커지며 때로는 진실을 밝히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 (수사 방법이 자백에 의존하게 되었을 때의 부작용 / 자백배제법칙의 근거) 이에 자백배제법칙은 자백의 주체가 신체적, 정신적 압박(= 임의성 제한) 없이 임의로 한 자백만 증거능력을 인정하게 하여, 자백을 강요하는 것을 금지한다.

5문단: 자백배제법칙의 개념 및 필요성

전문법칙(증거능력을 배제해야 하는 조건③)은 전문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원칙(전문법칙의 개념)이다. 전문 증거란 피고인, 증인 등 사안을 체험한 자가 구두로 진술한 진술증거 가운데 법정에서 직접 이루어지지 않고 다른 사람에 의해 간접적으로 전해진 것(전문 증거의 개념)을 말한다. 이러한 전문증거에는 구두로 전하는 전문진술과 서류인 전문서류(전문 증거의 종류 / 분류 기준: 전해지는 형태)가 있다.

6문단: 전문법칙의 개념과 전문 증거의 개념 및 종류

전문증거는 진술증거를 전하는 사람에 의한 편집, 조작의 우려가 있다는 점(전문법칙의 근거①), 전문 증거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을 할 수 없다는 점(전문법칙의 근거②), 전문 증거에 대해서는 법관이 법정에서 진술자에게 직접 묻고 답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정확한 언어적 정보를 획득할 수 없다는 점(전문법칙의 근거③) 등이 전문법칙의 근거로 꼽힌다. 다만 [전문증거임에도 피고인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데에 동의(전문증거가 증거능력을 가지는 경우)하면 증거능력을 인정]([]: 증거동의를의 개념 ★증거능력을 배제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을 묻는 문제에 '증거동의'를 활용한 문제가 답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음.)하는데, 이를 '증거동의'라고 한다.

7문단: 전문법칙의 근거와 증거동의

한편 증명력은 증거능력과는 달리 증거자료가 사실의 판단에 기여할 수 있는 정도, 즉 증거의 실질적인 가치로서의 신빙성(증명력의 개념 ★증명력과 증거능력의 차이를 확실히 인지할 것.)을 뜻한다. 증명력 평가는 증거가치가 크고 작은 정도의 차이를 따지는 것으로, 증거능력 평가가 증거능력의 유무만을 가리는 것과는 구별된다.(증명력 평가와 증거능력 평가의 차이) 증거능력이 있다고 해서 증명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증명의 자료로 활용되어도 증거가치가 작을 수 있음. - 예: 적법한 절차에 의해 증거로 인정되었지만, 내용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법관이 판단했을 때 ★선지에 사례를 제시하고 증거능력이 있지만 증명력이 없는 경우나, 증명력이 있지만 증거능력이 없는 경우를 묻는 문제 출제될 가능성이 높음.), 증명력이 있다고 해서 증거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다.(증거가치가 커도 증명의 자료로 활용되지 못할 수 있음. - 예: 증거를 위법하게 수집했거나, 강요에 의해 증거에 해당하는 자백을 얻었거나, 전문증거에 해당할 때)

8문단: 증명력의 개념과 평가 및 증거능력과의 관계

증명력 평가는 법관의 자유 판단에 맡겨(자유심증주의의 개념 ★증명력과 관련하여 자유심증주의에 관해 묻는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있음. / 증명력 판단의 주체: 법관)져 있는데, 이러한 원칙을 자유심증주의라 한다.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가 제출되면 증거가치에 대한 판단(= 증명력 평가 / 법관의 자유 판단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법관의 자유 판단에 따른다. 이때 법관의 판단은 합당한 근거를 배경으로 해야 하며, 단순한 자의적 판단은 정당화되지 않는다.(법관의 자유 판단의 조건)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법관은 [자유롭게 증거를 취사선택(법관의 자유 판단①)할 수 있고, 모순되는 증거가 있는 경우에 어느 증거를 믿는가(법관의 자유 판단②)도 법관의 자유 판단에 맡겨진다. 신빙성이 없는 증인의 증언이라 할 지라도 법관은 일정 부분의 증언을 골라내어 믿을 수도 있다.(법관의 자유 판단③)]([]: 자유심증주의에 따른 법관의 자유 판단)

9문단: 법관의 증명력 평가 - 자유심증주의

[지문 확인]

주제: 증거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1문단: 증거재판주의의 개념과 증거의 중요성

- 증거재판주의: 범죄사실은 증거에 의해 인정되어야 하며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함. → 공평하고 객관적인 형사재판을 가능하게 하는 전제가 됨.
- ➡ 증거는 형사소송법 체계에서 핵심적임.

2문단: 증거능력의 개념과 증거능력 유무에 따른 결과

- 증거능력의 개념: 어떤 증거가 증명의 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
- 증거능력 유무에 따른 결과
 - 증거능력 있음. → 사실 인정의 자료로 이용 → 유죄 판결 가능
 - 증거능력 없음. → 사실 인정의 자료로 쓰일 수 없음.

3문단: 증거능력을 배제해야 하는 조건과 목적

- 증거능력의 요건은 법률로 규정됨.
- 증거능력을 배제해야 하는 요건과 공통적 목적
 - 증거능력을 배제해야 하는 조건: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자백배제법칙, 전문법칙
 - 공통적 목적: 피의자, 피고인의 권리를 보장하여 공평한 재판을 실현

4문단: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개념과 목적 및 독수 과실 이론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개념: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원칙
- 목적: 형사사법기관의 위법한 증거수집 억제
- 독수 과실 이론
 - 개념: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독에 오염된 나무)를 바탕으로 수집한 2차 증거(독 열매)의 증거능력은 배제됨.
 - 2차 증거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위법하게 수집된 1차 증거와 2차 증거 사이에 인과관계가 희석 또는 단절되었다고 판단될 때

5문단: 자백배제법칙의 개념 및 근거

- 자백배제법칙의 개념: 수사 기관이나 법원이 진술자의 자백을, 임의성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얻어낸 경우에 그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원칙
- 수사 방법이 자백에 의존하게 되었을 때의 부작용
 - : 인권 침해의 우려가 커지고 진실을 밝히기 어려워질 수 있음. → 자백배제법칙의 근거

6문단: 전문법칙의 개념과 전문 증거의 개념 및 종류

- 전문법칙의 개념: 전문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원칙
 - 전문증거의 개념: 피고인, 증인 등 사안을 체험한 자가 구두로 진술한 진술증거 가운데 법정에서 직접 이루어지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의해 간접적으로 전해진 것
 - 전문증거의 종류: 전문진술(구두), 전문서류(서류)

7문단: 전문법칙의 근거와 증거동의

- 전문법칙의 근거
 - ① 전문증거는 진술증거를 전하는 사람에 의한 편집, 조작의 우려가 있다는 점
 - ② 전문증거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을 할 수 없다는 점
 - ③ 전문증거에 대해서는 법관이 법정에서 진술자에게 직접 묻고 답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정확한 언어적 정보를 획득할 수 없다는 점
- '증거동의'
 - 개념: 전문증거임에도 피고인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데에 동의하면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
 - 전문법칙의 예외에 해당함.

8문단: 증명력의 개념과 평가 및 증거능력과의 관계

- '증명력'의 개념
 - : 증거자료가 사실의 판단에 기여할 수 있는 정도(= 증거의 실질적인 가치로서의 신빙성)
- 증명력 평가와 증거능력 평가의 차이점
 - 증명력 평가: 증거가치가 크고 작은 정도의 차이를 따지는 것
 - 증거능력 평가: 증거능력의 유무만을 가리는 것
 - ➔ 증거능력이 있어도 증명력이 없을 수 있고, 증명력이 있어도 증거능력이 없을 수 있음.

9문단: 법관의 증명력 평가 - 자유심증주의

- 자유심증주의의 개념: 증거의 증명력 평가를 법관의 자유 판단에 맡기는 것
- 자유 판단의 조건: 합당한 근거를 배경으로 해야 함, 단순한 자의적 판단은 정당화되지 않음.
- 자유 판단의 예
 - ① 자유롭게 증거를 취사선택할 수 있음.
 - ② 모순되는 증거가 있는 경우에 어느 증거를 믿을지 선택할 수 있음.
 - ③ 신빙성이 없는 증인의 증언이라 할지라도 법관은 일정 부분의 증언을 골라내어 믿을 수 있음.

서지정보

저자 김정혜

발행처 나무아카데미

isbn 979-11-377-0712-2

제본형태 hwp pdf 파일

발행일 2021.04.26

가격 500원

